안녕하세요 Metro\_Helper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팀재화의 김재서, 박화비 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저희 프로젝트의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의 연구내용 그리고 토론을 통한 개선방향 등을 설명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저희 프로젝트 결과물 시연 및 상세 설명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프로젝트의 미래 방향성 및 활용 방향에 대해 설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 지하철에서 많이 더워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나요?

아니면 지하철에 잡상인이 돌아다녀서 시끄럽거나 불편 했던 경험이 있었나요?

그럴 때 저희는 지하철 민원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민원을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하다 NFC, QR Code, WIFI 이 3가지 방법으로 지하철 민원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프로젝트를 연구했던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결과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Design Thinking 프로세스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감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지하철 민원 신고할 때 왜 지하철 칸 번호를 찾고 지하철 민원센터번호를 알고 연락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른 사람도 불편한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매우 불편하다고 해서 그래 이점을 문제로 정의하고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엄청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봤습니다. 그 결과 앞에 소개에서 말했듯이 NFC와 QR 코드 와이파이 라는 방법을 생각 하게 되었고 사용자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 웹사이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제품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맨 처음 생각 했던 알고리즘이 웹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만든 웹사이트입니다. 처음으로 웹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고 만들던 때라 매우 디자인이 이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걸 실제로 적용이 가능하니 편하게 개발을 하고자 git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코드를 짜고 적용을 위해 개발을 하고 그후에 나올 평가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아 새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과정입니다. 저희는 지하철 칸번호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확립해서 한국철도공사에 문의를 넣고 답변을 받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로 생각 했던 WIFI Captive Portal기능에 대해 자세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생각 했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교내대회에서 시연을 위해 간단한 샘플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웹디자인 작동을 테스트하는 사진입니다. 저희는 Design Thinking 프로세스를 통한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저희 프로젝트 결과물을 시연해보겠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꺼내서 와이파이를 키고 Metro\_Helper 와이파이에 연결해주세요.혹시 연결 되셨나요?